

[국제리뷰] Global Fund for Women (세계여성기금)

한국여성개발원 김영혜 연구위원

여성단체에 대한 대표적 재정지원기구

여성단체들이 기금을 확보하는 일은 그들이 여성운동을 지속하고 성과를 가져오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여성단체는 재정적 지원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여성단체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구로는 개발원조기구, 독립기부금 조성재단, 공익재단 등이 있다.

개발원조기구는 양자개발기구와 다자간 개발기구로 나뉘어진다. 양자개발기구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 혹은 NGO에게 기금과 차관을 제공하여 개발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하며, 대표적인 개발기구로 캐나다 국제개발기구, 스위스개발협력기구 등이 있다. 다자간개발기구는 정부와 NGO에 자원을 제공하고 개발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하며,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여성발전기금(UNIFEM),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은행(World Bank), 아프리카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등과 영연방사무국(Commonwealth Secretariat), 유럽이사회(European Commission) 등의 정부간 기구 등이 이에 속한다.

독립기부금 조성재단으로는 포드재단, 켈로그재단, 카네기 재단, 밴 리어재단, 록펠러 재단 등이 있다. 자선 목적으로 개인이 기부한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 이들 기금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을 공익비영리기관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기관이다. 공익재단은 비정부 공익 자선조직으로서 재단과 직접 연관이 없는 기관 혹은 개인들을 지원한다. 세계여성기금(Global Fund for Women, 이하 GFW)은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여성권익 단체만을 지원하는 공익재단으로서 재정규모가 가장 큰 재단이다.

GFW는 페미니스트 관점과 연대의 원칙에 입각하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여성

이 함께 참여하는 기금이다. 빈곤, 폭력, 차별로부터의 자유를 얻고자 활동하는 여성단체를 지원하는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여성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데 미션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사회의 변화를 촉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일구고 공동체 사회의 모든 이들에게 공공의 혜택을 주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여성들이 협력하는 기금 활동이다.

전 세계 남녀평등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국제네트워크

여성들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 문화, 종교, 전통, 국가별로 각기 다른 경험과 요구를 가진다. GFW는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지원 기금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1987년 Anne Firth Murray (현 스탠포드대학교 교수)가 창설하였다. 전 세계 여성단체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여성의 인권을 옹호하고, 남녀 평등과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네트워크이다. 1996년 9월 현재 이사장 Kavita Nandini Ramdas (인도) 이 승계하였다.

전 세계 162 개국의 여성인권단체와 협력하는 국제네트워크로서 국제 여성운동을 증진시키고 전 세계의 사회 정의를 촉진시킨다. 국제적 이슈와 인권 부문의 전 세계의 여성지도자로 구성된 16명의 이사는 3년 임기의 무보수로 활동하며 기금지원결정을 최종 승인한다.

100명의 남녀로 구성된 국제자문위원회 전문위원은 기금조성, 평가, 모금, 조직개발 부문의 전문가로서 이사회에 의해 임명되는 3년 임기의 자원봉사직으로 이들은 기금의 신청과정을 심의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금연 이주여성인권연대 대표가 국제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직원은 32명의 다국적 남.녀로 구성되며, 프로그램 및 평가, 개발 및 커뮤니케이션, 재정 및 운영의 3개 팀이 있다.

기금의 성과 : 여성인권 증진을 통하여 사회 변화 촉진

GFW의 프로그램은 여성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 성에 기반한 폭력 철폐 및 평화구축 ● 경제 및 환경부문의 정의 보장 ● 보건 및 성/재생산 권리의 향상 ● 시민/정치 참여 증진 ● 교육 기회 확대 ● 사회변화를 위한 박애정신 배양 등의 6개 부문으로 정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기금의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여성과 여아의 인신매매 방지 (63개국 181개 여성단체에 230만불 지원), 여성과 자연재해에 대한 문제 제기, 재정 기부자들의 현장 체험 여행 (베트남, 캄보디아 여성 인권 현황), 니제르 식량지원 여성단체 지원,

북경행동강령 이행 10년 평가: 여성의 권한 증진 옹호 (제49차 여성지위위원회 참가 지원, 24개 단체), 각 국의 여성기금 후원 프로그램 운영 (지역 여성기금의 강화 및 지속성 지원), 평화구축 (중동아프리카 지역 9개 국 기금수혜기관 대표자 회의 개최), 아프가니스탄 및 파키스탄 여성지원 (여성과 여아의 문해 증진, 난민촌 생활 개선, 보건진료 및 성에 기반한 폭력 철폐 등), 여아의 교육 기회 증진 및 교육의 질 향상 등을 포괄함으로써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활동한 단체가 이끌어 낸 주요 성과로는 중국의 여성긴급전화 설립, 가나의 여아성기절제금지법률 제정, 니카라구아의 가정폭력특별법 제정, 모로코 의회의 10%여성의원 연대 구축 등을 꼽는다.

162개국 3000여 여성단체 총 4천7백만불 지원

2004-2005년도 기금모금액은 전 년도에 비해 37%나 증가하였다. 이는 2005년 2천만 불 모금을 목표로 추진했던 "Investing in Women Campaign"의 성공에 기인한다. 이 캠페인은 전 세계의 문제는 여성에게 투자함으로써 가장 잘 해결될 수 있다는 기치를 내걸고 기업재단 및 개인기부자 등의 모금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었다.

2003-2004년도 전 세계 여성 단체 지원금은 550만 불이었던 것에 비해 2004-2005년도는 740만 불에 이르렀다. 1987년부터 162개국 3000여 여성단체에 총 4천7백만 불을 지원하였다. 2005년도 모금액은 730여 만불에 이르렀다.

GFW는 기금의 확장과 동시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영 능력을 인정받아 2006년 4월 자선기구 재정건강 평가기관인 Charity Navigator로부터 4년간 연속으로 가장 높은 4-스타 평가를 수여받았다.

기금신청자격 및 방법 : 홈페이지 기금신청서를 통하여 신청

기금신청은 여성의 평등과 여성의 인권에 대한 확실한 공약을 천명하는 단체, 여성에 의해 운영되는 단체, 미국 외 소재 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3천여 개의 제안서가 접수되는데 이중 400여 단체가 지원금을 받는다.

홈페이지(<http://www.globalfundforwomen.org>)에 있는 기금신청서를 통하여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금신청은 사업제안서 기금과 국제회의 참가 및 회의 조직 지원 기금의 두 가지가 있다. 제안서는 마감기일 없이 연중 접수를 받는다. 제안서가 접수된 지 3주내에 접수통지가 송부된다. 매 3개월마다 기금이 수여되고, 최종 기금 수여결정까지는 6개월이 소요되며 기금의 수여금액은 최고 2만불에 이른다.

다.

국내에서는 이주여성인권연대(2002년),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2003년), 서울여성노동조합(2000년, 2004년), 미리암 이주여성센터(2005년) 등이 기금을 신청하여 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이들은 개인적 국제네트워킹과 기금 정보를 통하여 사업을 신청하여 수행함으로써 사업성과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이금연 이주여성인권연대 대표는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구축된 전문성과 신뢰에 기반하여 국제자문 위원으로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 대표는 여성빈곤,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소수자 문제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 차별의 산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여성의 임파워먼트 증진을 위한 재정 확보가 필요한 여성단체들이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GFW는 개발도상국의 여성단체의 특정한 요구와 경험이 국제개발프로그램에서 간과되는 문제점에서 창설되었다. 기금은 성 폭력으로부터 보호, 여아에 대한 교육 기회 증대, 여성의 경제적 활동 증진 등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이 그들의 사회에서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각국의 여성의 인권 증진에 밑거름이 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우리사회의 다양한 형태의 구조적 차별 이슈의 제기와 성 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하는데 재정자원이 필요한 우리나라의 여성단체도 국제사회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국제기금을 활용하도록 기대된다.